

농산어촌 관계인구 현황과 의의

성주인·송미령·한이철·정학성

요약

인구 감소, 저출생·고령화, 국토 불균형으로 인한 지속가능성 위기 속에서 농산어촌이 지닌 잠재력 부상

- 인구 감소, 저출생·고령화 심화, 인구와 자원의 수도권·대도시 집중이 지속된 결과 국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국가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음.
- 반면 2010년경부터 귀농·귀촌 인구 유입 추세가 꾸준히 이어지며, 농산어촌에서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실현할 의향을 지닌 도시민도 폭넓게 분포하고 있어 농산어촌이 국민들의 주거 및 여가 장소이자 자아 실현을 위한 활동 공간으로 부상함.

폭넓은 관계인구 저변은 농산어촌 활성화의 새로운 기회요인이 될 전망

- 관계인구는 정주민구와 교류인구의 중간 개념으로서, 특정 지역에 완전히 이주·정착하지 않았으나 정기·비정기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함.
- 도시민 조사 결과 특정한 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농산어촌에 방문하는 실질적 관계인구는 도시민의 19.3%로 추정되고, 부모·지인 방문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농산어촌 관계인구는 35.3%로 추정되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농산어촌 관계인구는 잠재적 정주민구, 지역공동체 사업을 이끄는 인적 자원, 지역사회에 대한 외부 지원 세력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농산어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농산어촌에서 희망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도시민 입장에서도 버킷리스트 추구 및 자아실현의 기회가 되는 등 관계인구 확대 전략은 도농상생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음.

기존 귀농·귀촌 정책을 확대하여 관계인구의 농산어촌 활동을 강화하는 정책 추진 필요

- 현행 정책은 창업·창농, 취업·취농 및 이주·정착 지원에 집중됨. 향후 도시민들이 농산어촌에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경제·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며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 특히 관계인구의 수요가 높은 농산어촌 정보 제공, 빈집·임대주택 등 체류할 공간 지원, 생활서비스 확충, 일자리 지원, 도시민의 농산어촌 활동을 돕는 지역 조직 지원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01

농산어촌 관계인구 논의 배경과 의의

인구 감소, 저출생·고령화, 대도시권 인구 집중으로 국가적인 지속가능성 위기 심화

대도시 집중 심화로 인해 농산어촌과 도시 모두 장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삶의 질이 저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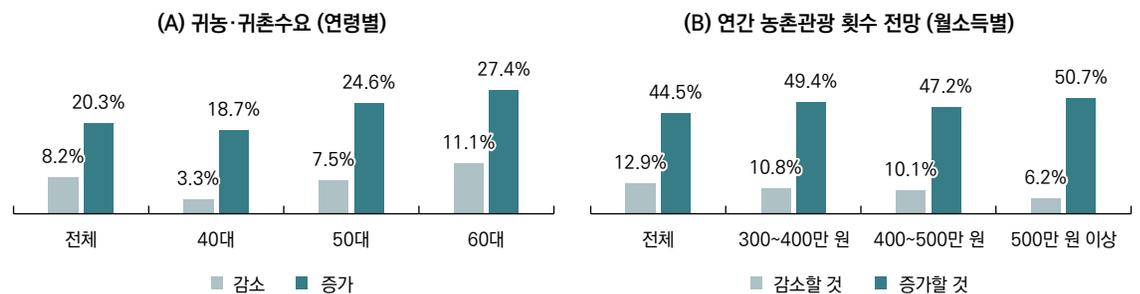
- 2021년 국내 인구가 처음으로 자연 감소하고,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인구 감소,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국가적인 지속가능성 위기가 대두되고 있음(통계청, 2022).
- 2020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는 등 인구와 자원의 수도권·대도시 집중과 국토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음.
- 대도시권에서는 인구 집중으로 인해 주거비·생활비가 급등하고, 교통 혼잡으로 인해 도시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으며, 농산어촌을 포함한 과소화된 지방은 청년 유출·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내생적 발전 역량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음.

인구 과소화 위기 속에서도 농산어촌이 지닌 잠재력이 새롭게 조명

국민들의 주거 및 여가 장소이자 다양한 활동 무대로 농산어촌이 부상함.

- 2010년대 중반 이후로 귀농·귀촌 인구 유입이 연간 50만 명 전후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도시민의 귀농·귀촌과 농촌관광 참여 의향이 이전보다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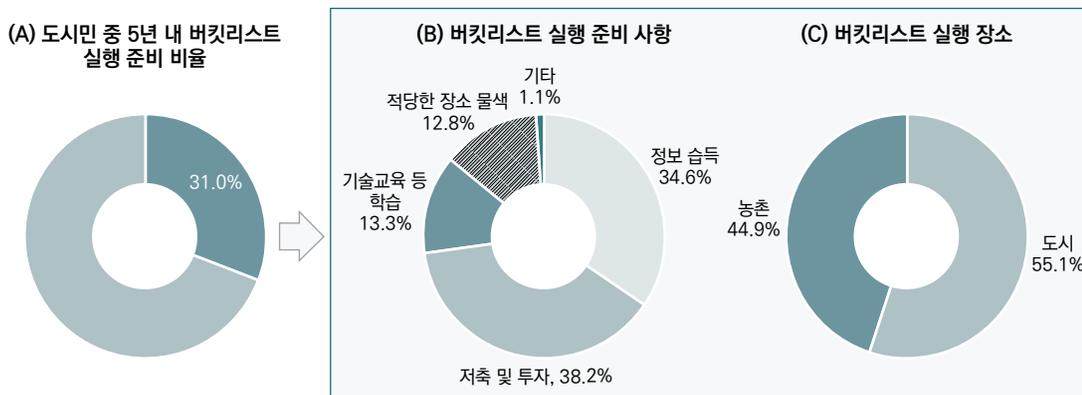
〈그림 1〉 코로나19 확산 이후 농산어촌에 대한 도시민 요구 변화(귀농·귀촌과 농촌관광 의향)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20년 4월 실시한 도시민 1,011명 대상 설문조사 자료 집계; 성주인(2020).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도시민 조사 결과 응답자의 31.0%가 5년 내 자신의 버킷리스트 실행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고 그 중 약 44.9%는 농산어촌을 실행 장소로 꼽음(전체 응답자 대비 13.9%에 해당). 농산어촌에서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실현할 의향을 지닌 도시민 저변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국민들의 거주공간이자 자아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 수행 장소로서 농산어촌이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함.

〈그림 2〉 농산어촌에서 버킷리스트(bucket list)를 실행하려는 국민 수요



주: 전체 도시민 응답자(2,291명) 중 5년 이내에 버킷리스트를 실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준비 단계에 있는 도시민(711명)을 대상으로 준비 사항, 버킷리스트 실행 희망 장소를 집계함.
 자료: 송미령 외(2019) 조사 결과 재구성.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해 관계인구 확대와 활용에 관한 논의 확대

농산어촌의 가치와 잠재력에 주목하는 최근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정주인구’만이 아니라 ‘관계인구’ 확대를 통한 농산어촌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됨.

- 5도2촌, 4도3촌 거주 등 국민들의 생활양식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Stock 개념의 ‘정주인구’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관계 맺고 교류하는 Flow 개념의 ‘관계인구’를 확대하여 농산어촌을 활성화하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됨.
-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에서 ‘생활인구’¹⁾의 확대를 지방자치단체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였으며, 경상북도 등 지자체 차원에서도 관련 시책²⁾을 개발하는 등 관계인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1) 생활인구를 ‘해당 시·군·구에 주민으로 등록된 정주인구’와 더불어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해당 시군구를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관계인구 개념과 높은 유사성을 보임(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검색일: 2021.12.15.).
 2) 경상북도에서는 도시와 지방에 2개의 거점을 보유하고 중장기적, 정기적, 반복적으로 순환 거주하는 생활양식을 지원하기 위해 ‘경북형 듀얼 라이프’ 시책을 제시함. 도와 지속적 관계를 맺고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인구’와 출향민 및 정기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는 국내·외 인구인 ‘체류인구’를 대상으로 지역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인구 감소 대응, 지방소멸 대응 정책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함(경상북도, 2021).

농산어촌 관계인구 현황과 의의

- 일본은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정책 전략으로서 ‘관계인구’의 확보에 주목, ‘제2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2020-24)’에서 ‘관계인구의 창출·확대’를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³⁾
- 일본 총무성에서 제시한 관계인구는 정주인구와 교류인구의 중간적 개념으로서, 특정 지역에 완전히 이주·정착하지 않았으면서도 일회성 단순 방문 이상의 활동을 하며 지역과 지속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함.
- 농산어촌 이주를 실행한 귀농·귀촌인 외에도 농산어촌과 관계 맺기를 희망하는 의향 집단, 실제 지역을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집단, 지역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실제 참여하는 집단 등 여러 유형의 관계인구가 존재하는바, 국내 농산어촌 관계인구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그림 3>.⁴⁾

<그림 3> 농산어촌 관계인구 개념과 유형

구 분		활동 유형
지역 핵심 관계인구	지역 인적 자원으로 조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공동체 조직 활동 (사회적경제 조직, 공동체 조직 등) ■ 지역 정기 방문 및 후원 ■ 정기적 재능기부 활동 ■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문적 자문, 지원 (외부 전문가, 창조인력 및 현장 지원 그룹)
지역 저변 관계인구	지역과 연관된 개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방문(1회성 방문 제외) ■ 지역 농특산물 지속 구매 ■ 지역 내 경제활동(출입농, 통근 포함) ■ 지역 이주 목적의 정보 탐색 ■ 지역 거주 체험 ■ 2지역 거주(별장, 주말 거주 등)
농산어촌 활동 의향 인구	장래 농산어촌 활동 추구 의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어촌에 대한 지속적 관심 ■ 농산어촌 정보 탐색(지역 마켓팅)
일반 국민	농산어촌에 대한 관심 또는 활동 의향 없음	

자료: 성주인 외(2021) 재구성.

3) 日本 内閣官房 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2020).

4) 이 글은 농산어촌 관계인구에 대해 연구한 송미령 외(2021a, 2021b)와 성주인 외(2021)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농산어촌 관계인구 현황과 정책 시사점을 요약 제시함.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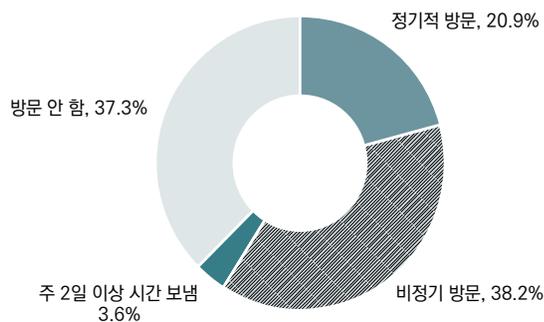
농산어촌 관계인구 현황과 특성

도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국내 실질적 농산어촌 관계인구 비율은 약 19.3%로 추정

도시민의 62.7%는 정기·비정기 방문, 체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산어촌과 관계를 맺고 있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21년 실시한 설문조사(송미령 외, 2021a)⁵⁾ 결과, 도시민들은 정기 방문(20.9%), 비정기 방문(38.2%), 주 2일 이상 체류(3.6%) 등의 형태로 농산어촌과 관계를 맺고 있음.

〈그림 4〉 농산어촌과 관계를 맺고 있는 도시민 현황



자료: 송미령 외(2021a)에서 2021년 20세 이상 도시민 1,6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집계함.

부모·지인 방문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농산어촌 관계인구층은 35.3%로 집계됨.⁶⁾

- 농산어촌 관계인구 범위 추정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도시민 설문조사(성주인 외, 2021) 결과, 특정한 농산어촌 지역에 정기적·비정기적으로 방문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5.3%,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64.7%로 집계되었으며,⁷⁾ 전자에 해당하는 응답자를 넓은 의미의 관계인구로 분류할 수 있음.
- 넓은 의미의 관계인구를 〈그림 5〉와 같이 세분해보면, 본인의 삶에서 농산어촌이 큰 의미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B 집단)은 8.8%, 부모·친인척·지인과의 교류만을 목적으로 농산어촌을 찾는다고 응답한 비율(C 집단)은 7.1%로 집계됨.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남녀 1,628명을 대상으로 2021년 1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임(송미령 외, 2021a).

6) 농산어촌 관계인구 현황 파악을 위해 2021년 9~10월에 도시 거주 20세 이상 남녀 2,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집계함(성주인 외, 2021).

7) 성주인 외(2021)의 조사에서는 응답자가 농산어촌과 갖고 있는 관계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특정한' 농산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설정하여 방문 정도를 파악하였음.

농산어촌 관계인구 현황과 의의

- 이 둘에 해당하지 않는 D 집단 응답자는 19.3%로서 부모나 친인척 방문 목적이 아닌, 특정한 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농산어촌에 방문하는 실질적 관계인구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그림 5〉 우리나라 농산어촌 관계인구 전체 비율 및 유형별 구성비 추정

	(D) 지속 방문 (부모, 친지, 지인 방문 제외) 19.3%	
	(B) 지속 방문 (농산어촌과 큰 관계 없음) 8.8%	(C) 지속 방문 (부모, 지인 방문) 7.1%
(A) 관계인구 아님 (지속 방문 지역 없음) 64.7%		

자료: 성주인 외(2021)의 도시민 2,518명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계함.

관계인구의 농산어촌 방문 목적은 부모·친인척 교류 및 관광·휴양 우세

젊은층은 일자리 등 경제활동, 개인 여가, 지역사회 활동 참여 목적 방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넓은 범위의 관계인구(B, C, D 집단 응답자)를 대상으로 농산어촌 방문 목적을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집계한 결과, 전반적으로 부모·친인척·지인 등과의 교류 및 여가·취미·휴양 목적의 방문 비율이 높음.
- 응답자를 연령별로 구분하면, 20대~30대는 일자리·사업·영농 등 경제적인 목적과 여가 활동, 지역사회 활동 목적으로 농산어촌을 방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40대는 관광·체험·여행 등 여가, 취미, 휴양 목적의 농산어촌 방문 비율이 높게 나타남(표 2).
- 50대~60대 이상 중장년층은 부모·친인척·지인 등과의 교류 목적 방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60대 이상은 이주 준비·2지역 거주, 질병 치료·치유 목적의 방문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표 2).

〈표 1〉 도시민 연령대별 농산어촌 관계 특성

단위: %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A) 관계인구 아님 (비방문)	63.1	65.0	65.1	63.1	66.6
(B) 방문하지만 농산어촌과 관계 없음	12.8	12.0	7.3	8.2	6.2
(C) 지속 방문 (부모, 친척, 지인)	4.2	5.0	6.9	9.6	8.3
(D) 지속 방문 (부모, 지인 방문 외)	19.9	18.1	20.6	19.1	18.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성주인 외(2021)의 도시민 1,800명(전체 2,518명 중 하위 세부 문항까지 조사한 응답자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표 2〉 도시민 연령대별 농산어촌 방문 목적 비교

단위: %

구 분	20대~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 체
이주 준비·2지역 거주 등 주거 목적	6.5	11.7	11.4	13.6	10.4
일자리·사업·영농 등 경제적 목적	13.4	12.1	9.8	12.1	12.0
관광·체험·여행 등 여가, 취미, 휴양 목적	48.6	52.4	45.7	43.9	47.8
예술·창작 등 개인 여가 활동 목적	15.9	10.2	6.0	5.1	10.0
봉사·재능기부 등 지역사회 활동 목적	10.9	6.8	7.1	5.1	7.8
부모님·친인척·지인 등과의 교류 목적	57.2	57.3	66.3	65.7	61.1
연수·교육 등 교육적 목적	5.4	6.3	2.2	1.0	3.9
본인·가족의 질병 치료, 치유 목적	2.9	3.4	3.8	8.6	4.5
기타	1.1	0.5	1.1	1.5	1.0

주: 복수 응답 집계 결과로서 합계가 100을 초과함.

자료: 성주인 외(2021)의 도시민 설문조사에서 넓은 범위의 관계인구 해당자의 농산어촌 방문 목적 응답 결과를 집계함. 따라서 부모님·친인척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교류도 포함됨.

농산어촌 핵심 관계인구 집단일수록 지역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더욱 활발히 참여

농산어촌과의 관계 정도가 강한 도시민일수록 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좁은 의미의 관계인구인 D 집단 응답자들은 지역 단체·조직 활동, 봉사·재능기부 등 농산어촌 지역 사회 활동 참여 비율이 B 집단 및 C 집단 응답자들보다 더욱 높으며,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지원 활동(지역 농특산물의 지속 구매, 금전 후원, SNS 홍보 등)에도 더 높은 비율로 참여함.
- 농산어촌에 지속해서 방문하고, 지역사회 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농산어촌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갖는 응답자일수록 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관계인구 확대가 국민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 향상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함.

〈표 3〉 도시민 설문조사 응답자 유형별 지역사회 활동 참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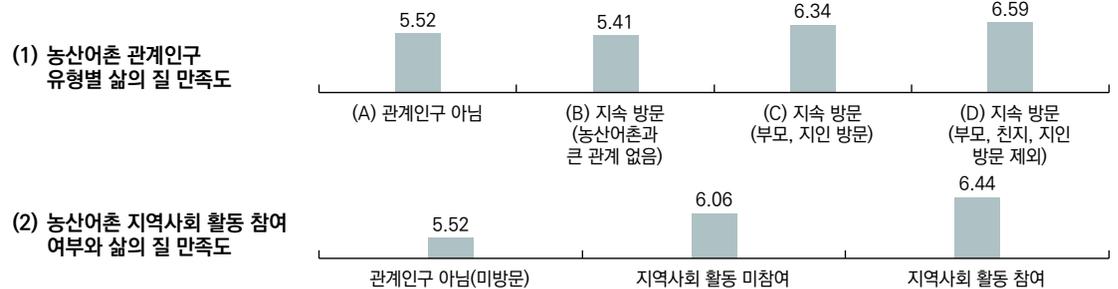
단위: %

활동 유형	농산어촌 관계인구 유형			전 체
	B집단	C집단	D집단	
지역 단체, 사회적경제 조직 활동	5.1	4.0	11.4	8.3
지역 농특산물 지속 구매	14.8	20.1	43.5	31.6
정기적 봉사·재능기부 활동	11.1	6.9	19.6	14.9
지역에 금전적인 후원 활동	6.5	3.4	13.1	9.5
SNS 홍보 등 지역 홍보 및 지원	4.6	5.7	14.3	10.2
기타	0.0	0.0	0.6	0.3
해당 사항 없음	73.1	68.4	36.1	51.9

주: 복수 응답 집계 결과로서 합계가 100을 초과함.

자료: 성주인 외(2021)의 농산어촌에 방문하는 B, C, D 집단 도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6〉 농산어촌 관계인구 유형별 삶의 질 만족도 비교(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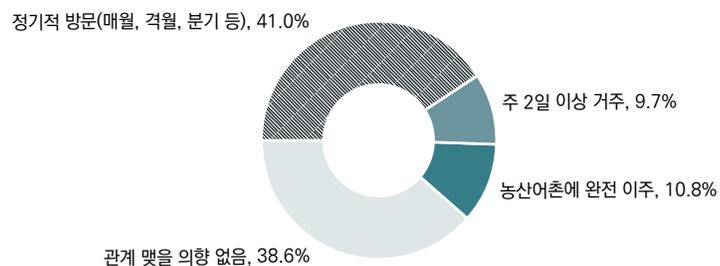
주: 자신의 삶의 질 만족도를 답한 점수(10점 만점)의 평균치를 응답자 유형별로 구분하여 산정함.
 자료: 성주인 외(2021).

관계인구 증가는 향후 농산어촌 활성화의 새로운 기회요인이 될 전망

방문, 일시 거주, 완전 이주 등 다양한 형태로 농산어촌과 관계 맺을 의향을 지닌 도시민 저변이 폭넓게 존재함.

- 농산어촌 관계인구 현황 및 수요 파악을 위해 송미령 외(2021a)에서 2021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도시민의 61.4%가 향후 농산어촌과의 관계를 맺을 의향이 있다고 답하고 있음.
- 응답자 중 정기적 방문 의향을 지닌 비율은 41.0%, 주 2일 이상 농산어촌 거주 의향은 9.7%, 완전히 농산어촌에 이주할 의향은 10.8%로 나타남. 방문형·5도2촌형·이주형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잠재적인 농산어촌 관계인구의 저변이 존재함.

〈그림 7〉 향후 농산어촌과 관계 맺을 의향에 따른 도시민 구분



자료: 송미령 외(2021a)에서 2021년 20대 이상 도시민 1,6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집계함.

핵심적 관계인구 집단뿐 아니라 비관계인구에 해당하는 도시민 중에도 농산어촌 활동 의향층이 다수 존재함.

- 넓은 범위의 관계인구에 해당하는 도시민들 중 89.4% 이상이 앞으로도 농산어촌 방문을 지속하거나 현재보다 활동을 확대할 것으로 답하고 있으며, 특히 핵심적 관계인구에 해당하는 D 집단 응답자들은 현재보다 방문 빈도를 늘리거나 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려는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남.
- 현재 관계인구로 분류되지 않는 응답자 중에도 앞으로 농산어촌 방문, 각종 지원 활동에 참여할 의향을 지닌 비율이 약 66.8%로 나타나 장래 농산어촌 관계인구 확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표 4〉 관계인구 유형별 향후 농산어촌 방문 및 활동 확대 의향

단위: %

활동 유형	B 집단	C 집단	D 집단	전 체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	67.1	75.9	52.5	60.9
방문 빈도를 늘리거나 더 다양한 활동 수행	14.8	14.9	39.7	28.5
현재보다 방문 빈도나 활동을 줄임	15.3	8.0	7.0	9.3
더 이상 현재 농산어촌 지역을 방문하지 않을 것	2.8	1.1	0.8	1.4
합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성주인 외(2021)의 농산어촌에 방문하는 B, C, D 집단 도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5〉 향후 농산어촌과 관계를 맺을 의향(비관계인구 응답)

구 분	비율(%)
정기 방문·체류·봉사 등 농산어촌과 관계를 맺을 의향 있음	17.0
직접 방문은 아니지만 농산어촌을 응원하고 지원할 의향 있음	49.8
농산어촌과 관계 맺을 의향이 없음	33.2
합 계	100.0

자료: 성주인 외(2021)의 설문조사 결과 중 비관계인구로 분류된 응답자의 향후 의향을 집계함.

관계인구 확대가 장차 농산어촌 마을 유입 인구 증가와 같은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산어촌 패널 마을의 이장 대상 설문조사 결과(송미령 외, 2021b), 전체 마을 중 약 30.4%에 관계인구가 활동하고 있음.⁸⁾
- 농산어촌 사례 마을을 방문한 관계인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⁹⁾ 응답자(32명) 모두가 앞으로 마을에 지속적으로 방문하거나 방문 빈도를 더 늘리겠다는 의향을 나타냄.
- 앞으로 농산어촌 마을에 이주할 의향을 갖고 있는 응답자 비율도 28.1%로 집계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관계인구 증대가 농산어촌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함.

〈표 6〉 농산어촌 패널 마을에 지속 방문하는 관계인구 특징

구 분	응답 내용	비율 (%)
향후 주기적 마을 방문 의향	현재처럼 계속 방문할 계획이다	96.9
	방문 빈도를 더 늘리거나 다양한 활동을 할 것이다	3.1
	더 이상 이 마을을 방문하지 않을 계획이다	-
	합 계	100.0
마을 이주 의향	이주를 고려 중이다	28.1
	생각해보지 않았다	56.3
	이주할 생각이 없다	15.6
	합 계	100.0

자료: 송미령 외(2021b)에서 사례 마을(8개)에 다양한 목적으로 방문한 응답자(32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집계함.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도별로 선정한 전국 102개 농산어촌 패널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2021년 조사한 결과임(송미령 외, 2021b).

9) 송미령 외(2021b)의 농산어촌 패널 마을들 중 외부 도시민과의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 마을에 실제 방문한 관계인구 응답자(32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03

농산어촌 관계인구 활동 사례

농산어촌의 잠재적 정주인구로서 관계인구

관계인구 증가는 인구 유입과 농산어촌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함.

- 단양군 한드미마을에서는 농촌유학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도농교류 사업이 진행됨. 유학생 가족 및 교사들이 마을에 정착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가 유지됨.¹⁰⁾
- 귀농·귀촌 이주는 일시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도시민들이 상당 기간 마을과 교류를 지속해오면서 농산어촌에서 생활할 준비 과정을 마친 후 주거지를 옮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농산어촌 인구 증대를 위해서는 한드미마을 사례와 같이 관계인구 교류가 바탕이 되어야 함.

〈그림 8〉 농촌유학과 연계한 한드미마을 주요 시설



마을 사물실의 베이커리 카페
(마을 귀농인 운영)



한드미농촌유학센터



농촌유학으로 폐교 위기를 넘긴
가곡초등학교 대곡분교

자료: 송미령 외(2021b)에서 재인용.

지역공동체 사업을 이끄는 인적 자원으로 농산어촌 관계인구

관계인구가 중심이 되어 농산어촌 활성화를 이끌어가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함.

- 마을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지원하는 역할로 마을사업에 참여하던 사람들이 이장, 사업 추진위원장 등 마을 리더 역할까지 담당하는 등 농산어촌 관계인구가 마을 활성화의 핵심 주체로 발전하는 사례도 나타남.

10) 과거 33가구였던 한드미마을은 2021년 기준 48가구로 가구 수가 증가하였고 마을이 소재한 가곡면 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마을로 변화함 (송미령 외, 2021b).

- 양평군 수미마을에서 주요 체험마을 사업을 총괄하는 영농조합법인 수미마을의 위원장은 현재 마을에 거주하지 않지만 마을 사무장에서 시작하여 현재 마을사업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성장함(송미령 외, 2021b).¹¹⁾
- 남해군 동고동락 협동조합은 농산어촌 학교에서의 대안교육을 위해 이주한 교사와 학부모로 구성된 대안교육 공동체가 협동조합으로 발전하여, 지역의 핵심 인적 자원으로 성장하고 다양한 마을만들기 활동을 담당하고 있음(성주인 외, 2021).¹²⁾
- 서천군 삶기술학교에서는 도시 청년층이 지닌 아이디어와 유연성을 지역 전통 자원에 접목하여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농산어촌 활성화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성주인 외, 2021).
 - 카페, 서점 및 사진관, 체험 교육장, 미술 교습소, 음식점 및 빵집, 호텔 및 숙박시설, 대장간 등 다양한 서비스가 지역 내에 창출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활력 증진에 기여함<그림 9>.

<그림 9> 서천군 삶기술학교가 중심이 된 지역 사업 사례



독립서점 및 사진관

공유주방 및 유기동물 분양·교육 센터

커뮤니티 호텔H

자료: 성주인 외(2021) 재구성.

농산어촌 지역사회에 대한 외부 지원 세력으로서 관계인구

외부 주체들과 다양한 방식의 관계 형성 및 확대가 농산어촌 활성화의 성패에 크게 영향을 미침.

- 자체적 역량이나 전문지식, 네트워크가 부족한 농산어촌 지역 구성원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외부 주체들의 역할도 농산어촌 활성화의 요건이 되고 있음.
- 연천군 새동지마을은 마을 방문을 포함하는 관광 프로그램, 체험지도사가 학교에 직접 방문하는 음식 체험 프로그램, <그림 10>과 같이 유희화된 마을 체험관 시설을 농촌 인력중개센터로 활용하는 프로그램¹³⁾ 등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 과정에서 외부 관계인구로 볼 수 있는 민간 조직의 도움을 받음(송미령 외, 2021b).

11) 마을사업 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지만, 현재도 마을 주민이 아니라 인근 용문면에 거주하는 관계인구임(송미령 외, 2021b).
 12) 활동 초기에는 지역사회서비스 공급 중심의 공익적 비영리 사업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높였고, 이후 각종 경제사업 및 다양한 지역공동체 사업을 수행하며 도시민과 지역의 관계 형성·강화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활동 영역을 넓힘(성주인 외, 2021).
 13) 코로나19로 인해 단체 방문객 유치가 어려워지자, 유희화된 마을 체험관 시설을 농촌지역 농업인력 알선, 교육, 관리 역할을 담당하는 업체인 '푸마시'와 연계하여 연천군 지원 사업인 농촌인력중개센터로 활용함<그림 10>.

농산어촌 관계인구 현황과 의의

- 밀양시 용소마을에서 도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다랑논 공유 프로젝트’는 농산어촌 자원 보전·가치 제고에 관심을 가진 도시민이 관계인구가 되어 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청년 농업인이 중심이 되어 다랑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다랑논 보전, 토종벼 복원과 생태계 보전, 마을의 농지를 임대해서 도시민과 공유하는 활동을 추진함. 공유하는 논은 평당 1만 원의 참가비를 받고 체험활동(모판 만들기, 손 모내기, 김매기, 추수 등)을 함<그림 11>.
- 도시민이 지역에 방문하지 않고도 소비활동을 통해 농산어촌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해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 함안군 대촌마을에서는 교류 관계를 맺은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여성 농민 생산자 협동조합인 ‘언니네 텃밭’에서 친환경 농산물 정기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송미령 외, 2021b).

<그림 10> 인력중개센터로 활용 중인 연천군 새등지마을의 체험관



체험관 전경



체험학습장

자료: 송미령 외(2021b).

<그림 11> 밀양시 감물리(용소마을) 다랑협동조합 활동 사례



자료: 이문호(2021).

04

시사점

농산어촌 관계인구로 분류할 수 있는 저변층이 폭넓게 존재하며, 향후에도 확대될 전망

관계인구는 농산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인적 자원의 역할을 하며, 앞으로 역할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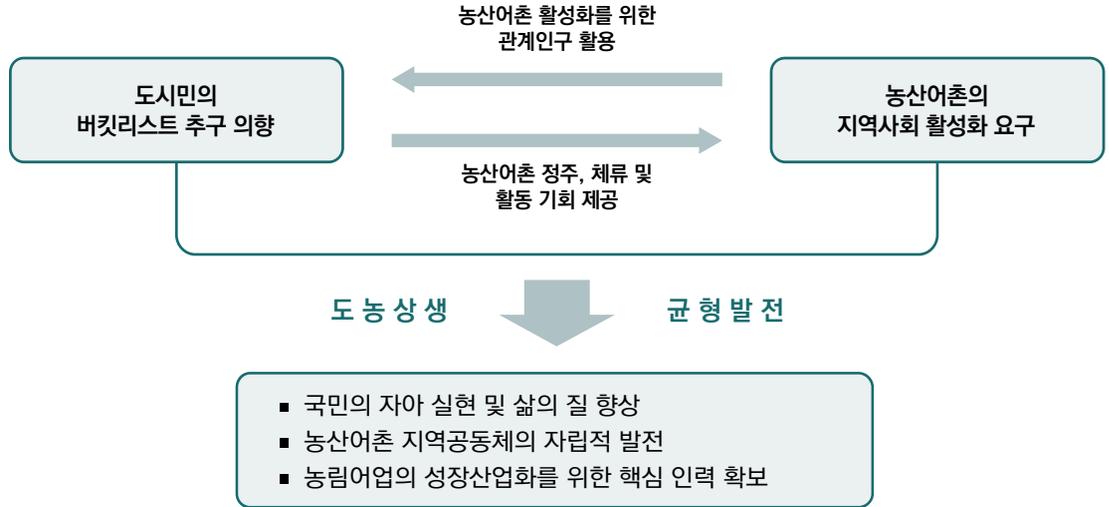
- 우리나라 도시민에게 특정한 농산어촌 지역을 정기·부정기적으로 꾸준히 방문하는 농산어촌 관계인구가 다양한 연령층에 걸쳐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함.
- 지금은 농산어촌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응답자 중 다수가 앞으로 농산어촌을 지속해서 방문하거나 활동을 유지 또는 확대할 의향을 나타내고 있어, 우리나라 농산어촌 관계인구 저변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 농산어촌을 꾸준히 방문하는 도시민들 중에는 지역사회 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지역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금전적 후원이나 지역 농특산물 구입, SNS 등을 통한 응원과 홍보 등의 방식으로 농산어촌을 지원하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에서 파악됨.
- 여러 현장 사례에서도 농산어촌의 잠재적 정주인구이자 지역공동체 사업 참여 주제나 리더, 외부 지원 그룹으로서 관계인구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농산어촌 관계인구 확대는 도농상생에 입각한 농산어촌 활성화 전략으로 의의

농산어촌 관계인구 확대는 지역 활성화뿐 아니라 국민 전반적인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도농상생의 균형발전 전략으로 의의를 지님.

- 농산어촌에서 여러 활동에 참여하는 응답자일수록 개인적으로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관계인구 확대 전략은 도시민 개인 입장에서는 버킷리스트 추구 및 자아실현의 기회가 될 수 있음.
- 농산어촌 입장에서는 관계인구를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 및 농림어업의 미래 성장 동력 획득을 위한 새로운 인적 자원 확보와 미래 정주 인구 유치 등을 기대할 수 있음.

<그림 12> 농산어촌 관계인구 확대·활용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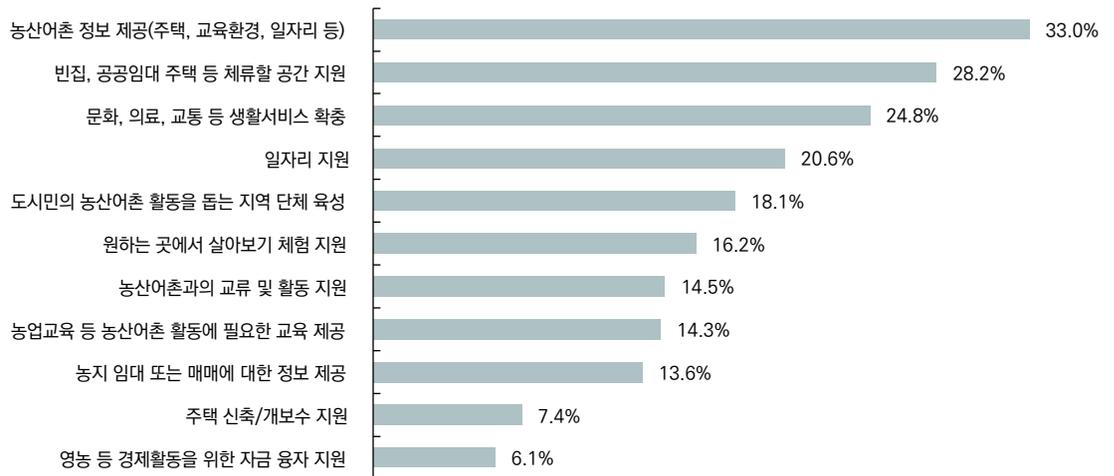
자료: 성주인 외 (2021)을 바탕으로 재구성.

관계인구의 농산어촌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책 요구에 본격적으로 대응할 필요

농산어촌 정보 제공, 체류 공간 지원, 생활서비스 확충 등에 대한 도시민 정책 요구가 존재

- 도시민 조사 결과(성주인 외, 2021), 농산어촌에서의 활동을 위해 각종 정보 제공(주택, 일자리, 관련 교육 등)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우세하고, 이어서 빈집·임대주택 등 체류할 공간 지원, 생활서비스 확충, 일자리 지원, 도시민의 농산어촌 활동을 돕는 지역 조직 지원 등의 순서로 응답이 집계됨.

<그림 13> 관계인구의 농산어촌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 사항



주: 농산어촌에서의 활동을 확대할 의향을 지닌 응답자를 대상으로 정책 지원 수요를 집계함(1, 2순위 복수 응답).
 자료: 성주인 외(2021)을 바탕으로 재구성.

영농 지원 중심의 기존 귀농·귀촌정책을 확장하여 농산어촌 관계인구 확대·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

- 현행 정책은 창업·창농, 취업·취농 및 이주·정착 지원에 집중됨. 도시민들이 농산어촌에 관심을 갖고 관계를 형성하며 지역사회 활동 및 다양한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충분하지 않음.
- 농산어촌에 대한 단순한 흥미에서 출발하여 지속적인 관심으로, 관심에서 활동으로, 활동에서 기여하기로 단계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농산어촌과의 관계맺기를 다양화하고 강화할 방안 마련이 필요함.

참고문헌

- 성주인. (2020). “농촌 재생, 미래 변화를 준비한다.”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토론회 자료집 21-4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성주인, 김광선, 심재현, 한이철, 서형주, 정학성. (2021). 균형발전을 위한 농산어촌 관계인구 활용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 성주인, 김광선, 심재현, 정도채, 서형주. (2019). 행복한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 유토피아 구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 성주인, 김광선, 구자춘, 정도채, 서형주. (2021a). 100세 시대, 도농상생의 농산어촌 유토피아 실천모델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 성주인, 한이철, 민경찬, 임승현. (2021b).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 사업(10의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문호. (2021). “경남 농촌마을사례와 공간계획의 필요성.” 농촌공간계획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발표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日本 内閣官房 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 (2020(令和 2年 7月)). まち・ひと・しごと創生基本方針2020.
- 경상북도. (2021.11.30.). “경북도, 인구감소 생존전략 ‘듀얼 라이프’ 꺼냈다.” 검색일: 2021.12.11.
- 통계청. 2021년 인구 동향 조사 출생·사망 통계. 검색일: 2022. 6. 3.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gcom/>). 검색일: 2021. 12. 15.
- 농촌유학 홈페이지(<http://www.sigol-i.org/>). 검색일: 2020. 11. 9.

KREI 농정포커스

감 수 박시현 명예선임연구위원 061-820-2343 shpark@krei.re.kr
내 용 문 의 성주인 선임연구위원 061-820-2199 jiseong@krei.re.kr
발 간 물 문 의 유정인 선임전문원 061-820-2282 edela@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농정포커스 제208호

농산어촌 관계인구 현황과 의의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22. 6.
발 행 인 김홍상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I S S N 2672-0159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